

롯데, 이번주 '가을야구' 최대 분수령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 눈앞... 4위 LG부터 7위 SK 와이번스와 승차 불과 2경기, 중위권 팀들 경쟁 치열

롯데 지어언츠는 이번주 '가을야구' 진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을 치른다.

롯데는 지난주(15~20일) 5승1패의 성적을 기록해 시즌 50승2무5패로 5위에 올랐다. 한 때 4위까지 올랐지만, 현재 LG 트윈스(56승1무5패)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밀린 5위다.

롯데와 선수와 팬들은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어 흥분된 분위기다.

지난주 초 잘 나가던 두산 베어스에 2연승을 거둔 롯데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2연전도 모두 승리했다.

특히, 지난 18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9회 초 최준석의 동점 투런 홈런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간 후 12회 4점을 뽑아 8-5로 이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지난 20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도 9회초 전준우의 타점 적시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최근 경기 후반에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원중과 조쉬 린드블럼 등 선발진이 제몫을 다했고 마무리 손승락도 4경기에서 3세이브를 거두는 등 투수진의 역할이 컸다.

롯데는 22일부터 1위팀 KIA 타이거즈와 LG 6위 넥센 히어로즈(50승1무5패)와 차례로 맞붙는다.

롯데는 올 시즌 LG를 상대로 4승1무6패로 열세를 보였지만, 넥센을 상대로는 8승5패로 강했다.

4위 LG부터 7위 SK 와이번스(58승1무57패)와의 승차는 불과 2경기밖에 나지 않기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지어언츠의 경기, 롯데가 3-1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때문에 중위권 팀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SK 역시 3연승을 거두는 등 지난주 3승1패를 기록했다.

'홀런군단' 특유의 장타력이 빛을 발하면서 상대팀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박정권(15타수 10안타)과 최항(16타수 10안타)은 지난주 6한타의 타율을 기록했고, 4홈런을 합작했다.

문승환과 스캇 다이아몬드, 메릴 켈리 등

선발진이 나란히 1승씩 수확하며 시즌 막바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1위 KIA(69승1무40패)는 70승 문턱에서 충격적인 3연패를 당했다. 2위 두산(64승2무46패)과 승차는 5.5경기로 여유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타타를 3할이 넘는 강타산이 최근 3경기 연속 1득점에 그쳐 3연패를 당했다.

KIA는 지난주 5경기에서 11점을 뽑는 데 그쳤다.

KIA는 22일 롯데전에 리그 최다승 투수 양현종(17승3패 평균자책점 3.38)을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두산에 2위 자리를 내준 3위 NC 다이노스(64승1무49패)는 지난주 역시 2승4패로 부진했다. 최근 12경기에서 4승8패를 기록했다. 타선의 침체가 원인이다.

NC는 이번주 LG kt 위즈 KIA와 차례로 상대한다.

/김민근기자



순창초,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단체전 우승 · 개인복식 우승

순창초등학교 정구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옥천군 실내정구장에서 열린 제4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복식 우승 3위를 거머쥐며 올해 열린 각종 대회에서 승전보를 이어갔다.

순창초는 A팀(5~6학년), B팀(4학년)이 참가하였다.

A팀(5~6학년)은 예선전에서 점촌 중앙초, 인천 동암초, 번동초를 누르고 본선에서 경기 안성초, 충북 남신초를 2:0 스코어로 승리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순창초 B팀을 8강에서 승리한 충남 신례원초 A팀으로 순창초 선수들은 특유의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시합에 임한 끝에 2:0으로 승리하며 이번 대회에서 모든 세트를 승리로 이끄는 저력을 보였다.

B팀(4학년)은 예선전에서 상무초 B팀, 신례원초 B팀 꺾고 본선에 진출 대구 안일초를 2: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하였으나, 신례원초 A팀에게 패하여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4학년 선수가 주축된 B팀이 8강에 진출하여 앞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옥남 지도자는 "순창초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하다.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남 지도자는 순창 출신으로 열린 지도 노력으로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왔으며 그 실력 또한 전국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순창초 정구부는 제38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제10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개인복식 3위,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필라델피아 김현수, 대타로 나서 안타

이적한 지난달 29일 이후 5번째 안타... 시즌 타율 0.210에서 0.215로 'UP'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대타 출전의 기회를 잘 살렸다.

김현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AT&T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지어언츠와의 경기에서 팀이 1-2로 뒤진 7회초 1사 2루의 찬스에 대타로 나섰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 선발 투수 벤 라이블리 타석이 돌아오자 필라델피아 벤치는 김현수를 대타로 기용했다.

상대 구원 마크 멜란스를 상대한 김현수는 5구째 컷 패스트볼을 공략, 좌익수 방면에 안타를 뽑아내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2루에 있던 캐머런 퍼킨스가 홈에서 아웃패 팀을 동점으로 이끌지는 못

했다.

김현수는 7회말 수비 때 애덤 모건으로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지난달 29일 이후 5번째 안타를 때려낸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10에서 0.215(158타수 34안타)로 올라갔다.

필라델피아는 샌프란시스코를 5-2로 물리쳤다.

1-2로 끌려가던 필라델피아는 8회 1사 1, 3루에서 호르헤 알파로가 우전 적시타를 날려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1사 만루에서 페드로 플로리언이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뽑아내 4-2로 역전했다.

필라델피아는 9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거포 유망주 리스 호스킨스가 좌월 솔

로포를 뽑아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2연승을 달린 필라델피아는 45승째(77패)를 수확했다.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이날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펼쳐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추신수는 전날 시즌 15호 3점포를 포함해 6타수 4안타 3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지만, 제프 배니스터 감독은 휴식 차원이라며 추신수를 선발 라인업에서 뺐다.

벤치를 지키던 추신수는 팀이 0-3으로 뒤진 9회말 무사 1, 2루의 찬스에 대타로 나섰다.

상대 우안 계투 요원 후안 미나이를 상대로 추신수는 4구째 커브를 노려졌지만,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가면서 병살타로 이어졌다.

/김민근기자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 김제시청 5인조 단체전 준우승

김제시청 태권도팀이 전남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하여 5인조 단체전 준우승으로 지방선의 고장 김제시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태권도연맹에서 주최 주관하고 대한태권도협회, 광양시, 광양시의회가 공동 후원한 가운데 26개의 실업팀이 참가하였다.

5인조 단체전, 3인조 지방전, 개인전으로 구분되어 치루어진 대회로 명실상부한 최고 선수들의 자웅을 겨루는 잔치였다.

대회 첫날 5인조 단체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박예슬, 지소현, 이수민, 오우리, 윤주희, 이미성) 예전을 거쳐 결승전에서 대구수성구청과 한판 승부를 펼쳤으나 37:48로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대회 둘째날부터 치루어진 개인전에서는 -46kg 이효진, -57kg 지소현, +73kg 이수민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모두 아깝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고 또한 -53kg 왕남지, -73kg 박예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아쉽게 금메달 획득은 못했으나 5명의 선수가 입상을 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김제=곽노태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